

# 공존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2022  
SPRING  
제59호



“한국과  
이탈리아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KOREA

IMMIGRATION  
SERVICE

이탈리아 국적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출입국 브이로그  
정보분석관의 24시간

출입국 줄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글로벌 트렌드  
'나'에 집중하는 시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 제1화: 진실한 마음

# 낮선 땅에서 나누는 진실한 마음

우리는 수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때로는 시간과 정성을 들여 서로를 이해하고 길들이는 데 인색한 경우도 있다. 동화 <어린왕자>를 통해 외로움의 별에 사는 우리 이웃에게 어린왕자가 전하는 소통의 메시지를 들어본다.

## 동화 <어린왕자>에서 얻은 깨달음

앙투안 마리 장 뵘티스트 로제 드 생텍쥐페리(Antoine Marie Jean-Baptiste Roger de Saint-Exupéry)의 동화 <어린왕자>는 전 세계에서 1억 부 이상 출판된 명작이다. <어린왕자>는 80년 가까이 300개 이상 언어로 꾸준히 출판되었으며 총 27장으로 이루어진 이야기의 시작은 비행사 이야기다. 어린왕자는 여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비행사에게 전한다.

“네가 나를 길들이고 내가 너를 길들이면 우린 서로 떨어질 수 없게 돼. 넌 나에게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되고, 난 너에게 돌도 없는 친구가 될 테니까.”

어린왕자는 길들이기를 통해 여우, 장미와 추억을 공유하고 마음을 풀어놓는다. 길들이기를 통해 어린왕자와 여우, 장미는 저마다 서로에게 각별한 존재 가치를 갖는다. 마음 깊숙이 교감하며 관계 맺음을 양분 삼아 나눔의 선한 꽃을 피워낸다.

## 나와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기

소통은 주고받는 마음속에서 빛이 나며 그 동력은 배려에서 나온다. 길들이진다는 것은 관계 맺은 가족, 친구, 동료, 이웃, 사회가 서로를 위해 변함없이 행동하게 만드는 힘이다. <어린왕자>는 ‘친구를 계속 사랑하고, 곁에 있어 주며, 응원해 준다’는 말로 서로를 정의한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속한 사회를 사랑하며 다양한 역할로 진실한 마음을 표현해야 한다. 서로 다른 그들을 격려하면서 함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지를 보내야 한다.

일상 속 만남이 더없이 귀하게 느껴지는 요즘 나와 다른 그들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가장 큰 배려이다.



공존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도 어김없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뺨에 닿는 바람이 따스하고 지천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연속이지만 우리에게 봄은  
새로운 출발과 희망을 선사하는 계절입니다.  
저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도 봄맞이  
반가운 새 소식과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올해는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년이 되는 해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한 숨은 유공자 3명에게 2월  
24일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고, 한국인으로서의  
새 출발을 응원하고 감사를 전하였습니다.

3월 21일부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안산출장소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되면서  
종합적인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관할 지역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운  
상황에서 봄을 맞아 바빠진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올해 새롭게 바뀐 계절근로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실효적인 항만 출입국관리로 국경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4월 1일부터 법무부 감시정을 40년 만에 다시  
운용하였고, 보호 외국인의 자율성과 권익 강화를 위한  
인권친화적 개방형 보호시설을 시범운영을 거쳐  
4월 18일부터 본격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는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잘 적응하여 국민과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공존 독자 여러분들도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Dear readers,

As with any other year, spring has finally come. The breeze that touches our cheeks have the warmth we haven't felt in months, and flowers are in full bloom. Even when our daily routines may feel rather repetitive, the turning of the seasons, and most notably spring coming after winter, offers hope for a new start. We, at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are also greeting this change of season with some good news.

This year marks the 10th anniversary of conferring nationality for special contributors. This year, three unsung heroes, who did not spare passion and love with the commitment to help the most socially vulnerable, have been granted Korean nationality on 24 February, and we expressed our gratitude for their noble work and wished the best of luck as they embark on a new journey as Koreans.

Meanwhile, the Ansan Branch Office under the Incheon Immigration Office was elevated as a new immigration office as of 21 March. This now allows foreign nationals living in the vicinity to have greater accessibility to a wider range of comprehensive and prompt immigration services.

While the pandemic continues to be an obstacle for foreign labourers in entering and leaving the country, we have introduced new measures to encourage more foreign nationals to take advantage of the seasonal work programme to support communities that rely on agriculture and fisheries, as spring season means the start of a busy season for these communities.

KIS also celebrated some important events in April. We re-deployed a surveillance submarine opera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four decades from 1 April. This is a move to ensure watertight border management at our ports. We also have been working on a pilot programme to launch a new type of detention centre that ensures greater freedom and human rights of detained foreign nationals and this new facility was officially opened on 18 April.

We remain committed to ensuring that foreign nationals living in Korea are well adjusted to life in Korea to create a society where everyone can co-exist in harmony. And on that note, I'd like to wish our readers a spring season full of hope, as well.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재유

Commissioner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

Jaeyoo  
Lee

---

# Contents

2022. SPRING / Vol.59



세계인과 소통하는  
공감매거진  
Korea Immigration Service Magazine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 대한민국 비자포털

[www.visa.go.kr](http://www.visa.go.kr)

## 사회통합정보망

[www.socinet.go.kr](http://www.socinet.go.kr)

## 페이스북

[www.facebook.com/immigration.kr](http://www.facebook.com/immigration.kr)

## 유튜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 카카오 채널

[http://pf.kakao.com/\\_gxbpPT](http://pf.kakao.com/_gxbpPT)

편집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기획과

발행일 2022년 4월

발행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번호 02-2110-4019

기획·편집·디자인 이루다플래닛(1566-7699)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웹진으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 COVER STORY

제1화 [ 진실한 마음 ]

### 02 공감 동화 : 어린왕자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은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입니다. 동화 <어린왕자>를 통해 재한외국인과 함께 조화롭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따뜻한 소통의 메시지를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 With

함께 만드는 공감

- 06** **MBTI 랜선 여행**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MBTI 유형별 다양한 봄나들이 명소
- 10** **정책 포커스**  
2022년 달라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14** **함께, 행복하게**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 18** **정책 인사이트**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 시행 5년
- 20** **출입국 브이로그**  
정보분석관의 24시간  
인천공항출입국 · 외국인청  
정보분석과 오채영 주무관 VLOG

## ON

서로 통하는 공존

- 24** **출입국 zoom**  
외국인과 ‘공존’을 모색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28** **클릭! 핫이슈**  
제10회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 현장 속으로
- 30** **글로벌 트렌드**  
‘나’에 집중하는 시대
- 32** **오늘 뭐하지?**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유튜브 영상 콘텐츠 배우기
- 34** **숫자로 보는 출입국**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 (K-ETA)’ 시행  
1년간의 이야기!
- 35** **NO.1 공존인을 소개합니다**
- 36** **KIS NEWS**
- 38** **EVENT**  
공존 공감 & 퀴즈 타임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성격유형검사  
**MBTI 유형별 다양한 봄나들이 명소**

요즘 상대방의 성향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MBTI가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대중화된 MBTI를 활용해  
개인별 특성에 어울리는 맞춤 여행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2년 <공존> 봄호에서는 외향형(E), 내향형(I), 판단형(J), 인식형(P)에 어울릴 만한 여행명소를 추천한다. 나와 잘 통하는 장소를 찾아 떠나는 일도 스스로를 알아가는 또 다른 재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다.

**MBTI 네 가지 유형**

외향 <b>Extraversion</b>	에너지의 방향	내향 <b>Introversion</b>
감각 <b>Sensing</b>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방식	직관 <b>iNtuition</b>
사고 <b>Thinking</b>	판단의 근거	감정 <b>Feeling</b>
판단 <b>Judging</b>	선호하는 행동 양식	인식 <b>Perceiving</b>

# E

외향형

## # 시원하고 짜릿한 비행 단양 패러글라이딩

단양은 국내 최고의 패러글라이딩 스팟으로 하늘에서 오색찬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스릴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지나칠 수 없는 필수 코스다. 특히 남한강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보며 짜릿한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만천하스카이워크, 짚와이어와 알파인코스터는 짜릿한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싶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 + 즐기는 방법

- ☎ 043-422-3675 (문의시간: 09:00~18:00) 📍 충북 단양군 가곡면 두산길 196-52
- ☑️ 즐길거리: 산악오토바이(ATV), 만천하스카이워크, 짚와이어 등



## # 파란 하늘과 바다가 숨쉬는 곳 부산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

부산은 낮에는 반짝거리는 바닷가, 밤에는 낭만적인 야경으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다. 풍경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풍부해 여행하기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도시로 손꼽힌다. 볼거리, 먹거리, 즐길 거리가 모두 넘쳐나는 부산에서 새로운 모험을 즐겨보자. '해운대 블루라인파크 해변열차'는 부산의 떠오르는 관광 핫플레이스로 해안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 + 즐기는 방법

- ☎ 051-701-5548 📍 부산 해운대구 청사포로 116(중동)
- ☑️ 이용안내 : 해운대 블루라인파크(www.bluelinepark.com)

## # 초록 내음 가득한 슬로시티 꿈의 드라이브 코스,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멋진 풍경을 즐기고 싶다면 전라남도 담양에 자리한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이 제격이다. 순창에서 담양으로 이어지는 약 8.5km 도로 양옆에 높이 10~20m의 메타세쿼이아가 절경을 자아낸다. 산림청이 선정한 '2002년 아름다운 거리숲' 대상,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2006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 즐기는 방법

- ☎ 061-380-3149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추성로 1371
- ☑️ 이용안내 : 담양군청 www.damyang.go.kr



# I

내향형



## # 산도 바다도 하늘로 푸른 도시 청산도 느리게 걷기

꽃피는 봄날, 느릿느릿 걸으며 바다정취를 즐기고 싶다면 완도군 청산도로 떠나보자. 청산도는 아시아 최초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이다. 청산도에 봄이 오면 남해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유채꽃의 노란 물결, 바람에 흔들리는 청보리, 탁트인 바다 풍경이 한데 어우러져 한폭의 그림이 된다. 2022 <청산도 슬로우걷기 축제>는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 + 즐기는 방법

- ☎ 061-550-5432 📍 전남 완도군 청산도 일원
- ☑️ 이용안내 : 2022 청산도 슬로우걷기축제 (www.wando.go.kr)



# J

## 판단형

### # 가장 높은 꿈을 가깝게 만나는 곳 국립항공박물관

국내 최초의 항공 분야 국립박물관. 항공 역사부터 산업, 생활 등 테마를 세분화해 층별 전시 공간을 조성했으며, 야외에도 항공 전시물을 설치해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자율주행이 가능한 미래형 자가용 항공기 'OPPAV' 등 항공 기술 발전이 가져올 미래의 모습을 엿보는 공간에서 색다른 활력을 느낄 수 있다.

#### + 즐기는 방법

- ☎ 02-6940-3198 📍 서울 강서구 하늘길 177 국립항공박물관
- ☑️ 이용안내 : 체험프로그램이 5가지로 블랙이글탐승체험, 조종관제체험, 기내훈련체험, 항공레포츠헤엄, 어린이공항체험이 있다. (월요일 휴관)

### # 서울의 문화를 느끼고 체험하는 공간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에는 서울의 뿌리와 서울 사람의 생활, 현대 서울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설전시와 함께 서울의 역사·문화를 증언하는 다양한 기증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기획 전시도 상시 진행 중이니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이용에 참고하면 좋다.

#### + 즐기는 방법

- ☎ 02-724-0274 📍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55
- ☑️ 이용안내 : 09:00~18:00(입장마감: 17:30), 휴관일: 1월 1일, 매주 월요일 / 관람료: 무료



# P

## 인식형

### #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 독섬 자벌레 서울생각마루

멀리 일상 밖으로 벗어나지 않아도 색다른 자극을 충족시키는 공간이 있다. 상상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공간, 서울생각마루는 시시각각 변하는 한강을 배경 삼아 수시로 달라지는 생각의 흐름을 무한대로 펼칠 수 있다.

#### + 즐기는 방법

- ☎ 02-3780-0519 📍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2202(7호선 독섬역)
- ☑️ 이용안내 : 10:00~22:00, 휴관: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추석



### # 600년 역사의 길을 걷다 서울한양도성

문화유산 사적 제10호 한양도성은 조선왕조 도읍지인 한성부의 경계를 표시하고, 이와 더불어 한양을 지키기 위해 축성한 곳이다. 전체 약 18.6km에 이르는 성벽은 백악산, 남산, 낙산, 인왕산 등의 능선을 따라 평지부터 산지, 구릉지 등을 연결하고 있다.

#### + 즐기는 방법

- ☎ 02-2133-2657 📍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4층
- ☑️ 이용안내 : 한양도성 순성길 4개 지점에 비치해둔 스탬프 4개를 받으면 완주배지를 수여한다.



# S

감각형

## 서울공예박물관 SeMoCA

시대와 분야를 아우르는 2만여 점의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다. 기술적 공예부터 실용과 예술의 공예까지 다방면에 걸친 공예품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즐기는 방법

- ☎ 02-6450-7000
- 📍 서울 종로구 율곡로3길 4
- 🌐 craftmuseum.seoul.go.kr



# N

직관형

## 충무로영상센터

영상문화와 관련한 서적과 DVD를 열람할 수 있는 도심 속 공간. 매월 소수의 취향까지 반영한 영화를 선정해 소규모 상영관에서 상영하고 있다.

+ 즐기는 방법

- ☎ 02-777-0421
- 📍 서울 중구 충무로4가 125
- 🌐 ohzemidong.co.kr

##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우리나라 근현대사 격동기의 수난이 고스란히 서려 있는 현장이다. 과거와 현재의 역사를 되새길 수 있는 이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그 자체로 숙연함을 느끼게 만든다.

+ 즐기는 방법

- ☎ 02-360-8590
- 📍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251
- 🌐 sphh.ssmc.or.kr

# T

사고형



# F

감정형

## 서울상상나라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자리한 곳으로 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에 의한 공간이다. 연령별, 주제별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즐기는 방법

- ☎ 02-6450-9500
- 📍 서울 광진구 능동로 216
- 🌐 seoulchildrensmuseum.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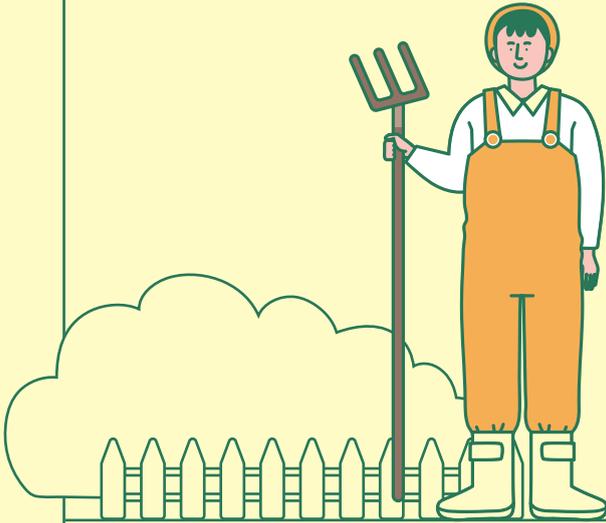


##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4월 18일~별도 안내 시까지)



- 1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2 사적모임 인원 제한 해제
- 3 행사·집회·종교활동 인원 제한 해제



## 농·어촌의 부족한 일손

# “우리가 해결해요”

2022 달라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 Foreign Seasonal

극심한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2015년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업하여 농·어번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처음 도입하였다.

농·어촌에서 일시적·집중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시기에 외국인 근로자를 최장 5개월까지 고용할 수 있게 하여 농·어민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2022년 더욱 강해져서 돌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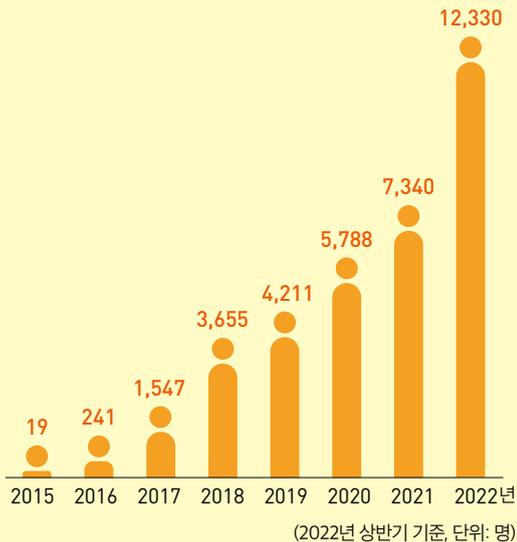
##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과 실적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난 2015년, 2016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필요 인원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친 뒤 취업 비자를 발급해 농·어가에 외국인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2015년 과산군이 19명의 계절근로자를 도입한 후 2017년 23개 시·군 1,547명, 2018년 44개 시·군 3,655명, 2019년 54개 시·군 4,211명으로 해마다 배정 인원이 늘었다. 하지만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의 국경간 이동이 쉽지 않아 해외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할 수 없었고 이에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 계절근로를 허용하는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를 시행하였다. 한시적 계절근로자 제도가 시행된 2020년에는 총 223명 참여, 2021년 2월부터 12월까지 44개 지자체, 총 1,266명의 외국인이 참여했다.



# Worker

##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 올해부터 달라진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은?

법무부는 코로나19로 국경 간 이동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농·어촌에서 연중 상시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올해 1월, '계절근로제도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였다. 이번에 새로 시행된 '계절근로 제도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소규모 농·어가 고용기회의 확대

농·어촌 인력난을 고려해 농·어가에 배정 가능 인원을 최대 12명으로 확대하고, 총 배정 인원 이내에서 근로자의 출국 등 고용변동 발생 시 국내 체류 외국인으로 추가 인원을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고용 시 농가당 2개 농작물로만 제한하던 규정도 폐지한다. 소규모 농·어가에게도 외국인력 고용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서는 1주일 단위의 단기고용도 허용한다. 또한 지자체, 농촌인력증가센터 등 공적 운영 주체가 외국인력을 고용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방식의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도 시범 운영한다.

현재	개선
농작물 요건 충족	▶ 폐지
최대 9명 고용	▶ 최대 12명 고용 허용된 인원수 내에서 계속 고용 가능
1개월 이상 고용	▶ 1주일 이상 고용

### ▶ 참여 대상 외국인이 확대되어 폭넓게 참여 가능

기존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를 허가받은 미얀마인들에게 제한적으로 계절근로 참여를 허용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어학연수생을 포함한 유학생, 현지 정세 불안으로 특별체류 허가조치를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 예술(D-1), 구직(D-10) 자격 외국인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했다.**

#### 기존 대상

방문동거(F-1) 및 동반(F-3) 자격 외국인,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고 있는 외국인, 현지 정세 불안에 따른 특별체류 허가받은 미얀마인 등

#### 추가된 대상

유학생, 특별체류허가 받은 아프간인,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동포, 문화예술(D-1)·구직(D-10) 자격 외국인

▶ **성실 계절근로자 재입국 기회 보장 등 혜택 부여**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가 국내법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근무해 해당 지자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 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해 재입국 기회를 보장한다. 또,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 중 유학생의 경우 60일 이상 계절근로에 참여하면 구직(D-10) 자격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비취업서약 방문취업(H-2) 자격의 경우 6개월 이상 계절근로 참여 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한다. 한편, 계절근로(E-8) 자격으로 5년간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부여하는 농·어업 숙련인력(E-7-5) 체류자격 신설과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어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할 수 있는 농·어업 이민비자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해외 입국 근로자**

성실 근무 시 재입국 기회 보장

**유학생**

점수제 우수인재(F-2-7)나 구직(D-10) 체류자격 변경 시 가점(60일 이상 참여)

**동포**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6개월 이상 참여) 등

▶ **무단이탈 방지 및 불법 고용주 처벌 강화**

이 밖에 외국인 근로자 이탈방지를 위해 외국 지자체와 협약체결(MOU) 시 귀국보증금 예치 제도를 신설하고, 외국인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계절근로제(E-8),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 특정 정책적 목적으로 도입한 외국인 중 이탈자를 불법 고용한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할 예정이다.

**외국 지자체**

귀국보증금 예치 등 근로자 무단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함

**불법고용주**

무단이탈 근로자를 불법 고용 시 근로자 초청 제한 등 제재 강화

▶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현황**



법무부는 지난 2월, 전국의 지자체로부터 상반기 도입 희망 인원을 신청받아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기본 심사를 거친 후 상반기 배정심사협의회에서 89개 지자체에 12,33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을 확정했다. 이는 2021년 배정 인원 7,340명보다 68%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갈수록 심화되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업하고, 농·어촌에 필요한 인력들이 시기에 맞춰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TIP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참여 방법(외국인 기준)**

**Q 어떻게 계절근로 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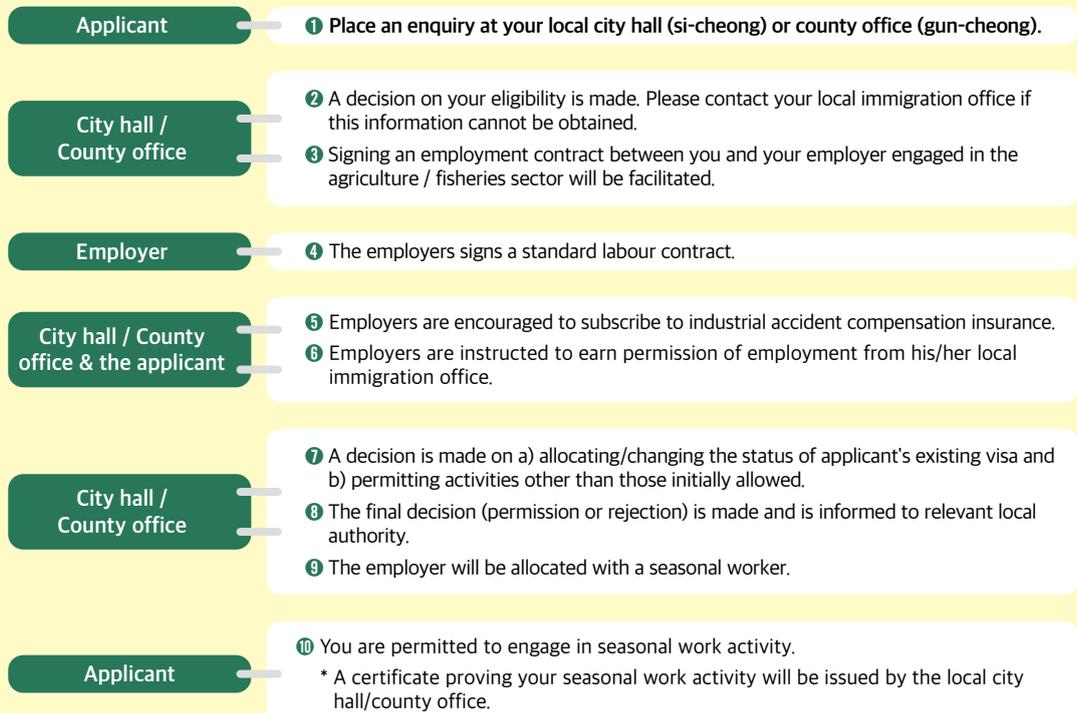
# The Seasonal Worker Programme(SWP)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This programme offers opportunities for foreign nationals in Korea to be employed in the agriculture/ fisheries sectors. Those interested are encouraged to take advantage of this programme.

## Eligibility

- ▶ Foreign nationals registered in Korea on an accompanied person visa (F-3)
- ▶ Foreign nationals registered in Korea on a visa for visits and cohabitation (F-1)
- ▶ Foreign nationals in Korea on a short-term (C-3) visa, which is issued after their voluntary departure from Korea.
- ▶ Foreign nationals who registered in Korea on a visa for employment (H-2) but later pledged not to take on any employment.
- ▶ International students registered in Korea on a student visa (D-2) or a language training visa (D-4)  
(※ Employment only permitted during vacations or public holidays during semester)
- ▶ Foreign nationals registered in Korea on a Korean arts and culture visa (D-1) or Job-Seekers' visa (D-10)
- ▶ Nationals of Afghanistan or Myanmar who obtained a G-1 visa in line with a measure to allow stay due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 ▶ Foreign nationals registered in Korea who are given an extension or a grace period for departure due to limited departure opportunities by Covid pandemic

## A flow chart of procedures



#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싶어요”

이탈리아 출신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JTBC <비정상회담>을 통해 처음 얼굴을 알린 이탈리아 출신의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 그는 특유의 쨌튼한 유머와 입담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고 있다. 방송 뿐만 아니라 <널 보러왔어>, <이탈리아의 사생활> 등의 책도 출간하고 번역도 하는 등 장르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알베르토 몬디를 만나보았다.

## 여행지에 머물다

이탈리아 동북부 출신의 방송인 알베르토 몬디(이하 알베르토). JTBC의 인기프로그램 <비정상회담>을 필두로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2007년 처음 한국에 들어와 어느새 15년째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알베르토지만 처음부터 한국에 정착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2007년에 처음 한국에 왔는데 그때는 속초에 있었어요. 두세 달 정도 여행하고 중국으로 가서 취업할 생각이었어요. 중문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원래는 잠깐만 머물 생각이었는데 한 달, 두 달 한국에 있는 기간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아내랑 연애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정착하게 되었죠.”

한국에 정착하는 건 알베르토의 당초 계획에는 없던 일이었지만 연애를 하게 되면서 취업까지 이어졌다. 문득 한국어를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까지 진학하게 됐다. 그에게 여행자로서 보던 한국과 정착하여 살아가는 한국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가장 큰 차이는 한국어를 아느냐 모르느냐인 것 같아요. 여행을 할 때는 한국어를 모를 때였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다 신기해 보였어요. 디자인적으로 예쁘니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간판만 보이면 사진을 찍었죠. 정착을 하고 한국어를 더 배우고 난 뒤로는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예쁜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속 뜻을 이해하고 좀 더 입체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 한국에 적응하기까지

머나먼 유럽에서 온 청년이 동아시아에 있는 생면부지의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다행히 한국과 이탈리아는 뚜렷한 사계절, 산으로 둘러싸인 국토, 음식 맛과 기후 등 닮은점이 많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었다. 다만 높임말 문화와 서열 문화는 수평적인 유럽권 국가에서 살다 온 그에게는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

A full-page photograph of a man with dark hair, smiling, wearing a light grey suit jacket, a white collared shirt, and a grey V-neck sweater. The background is a plain, light grey color.

# Alberto Mondi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보면 행복하고  
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레오랑 아라가  
달려와서 뽀뽀하고 안길 때면 너무 행복해요.  
함께 있는 순간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어졌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서 2년 동안 학업을 이어갔고  
이후에 취업까지 하게 되었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한국 학생  
들도 사귀고 한국어도 배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생활에  
도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 남편 알베르토, 아빠 알베르토의 삶

아내에게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 아이들에게는 친구 같고 편  
안한 아빠로 잘 알려진 알베르토. 한국인 아내와는 어떻게 처음  
만나게 되었을까?

“아내와는 중국에서 공부하던 시절에 만났어요. 아내도 중문과  
를 나와서 중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만났죠. 그때는 사귀는 사이  
는 아니었고 그냥 친구였어요. 그러다 한국에 와서 다시 만나 사  
귀게 되었죠. 4년 동안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연인이 부부가 되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  
은 타국 생활에 적응하는 일만큼이나 쉽지 않을 것이다. 알베르  
토 부부 역시 마찬가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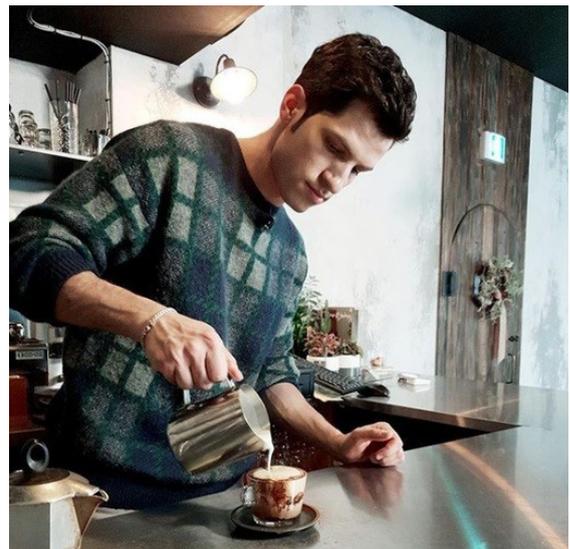
“한국과 이탈리아 사람들의 성향 차이로 힘든 적도 있었어요. 제  
가 직접적으로 말하면 아내는 그 말에 상처를 받기도 했죠. 지금  
은 함께한 세월이 길어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지만요.”

2011년 아내와 결혼해 한 사람의 남편이 된 알베르토는 2016년  
첫째 레오가 태어나면서 어엿한 아버지가 되었다. 그로부터 4년  
뒤에는 둘째 아라까지 태어나 어느덧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살

“이탈리아에도 반말과 높임말이 있지만 서열보다는 서로의 친밀  
도를 보여주는 걸로 많이 쓰여요. 교수님하고 이야기를 해도 교  
수님이 반말을 하면 학생들도 반말을 하는 거죠. 이탈리아에는  
이런 서열 문화가 없다 보니 한국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이 좀 있  
었어요. 눈치껏 알아서 하는 문화도 처음에는 알아차리기 어려  
웠고요.”

같은 점도 많지만 그만큼 다른 점도 많은 한국과 이탈리아. 겪어  
본 적 없는 문화에 적응해야 하고, 낯선 한국어도 익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국 정착을 결심한 것은 그의 지도교수 덕분이  
였다.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알아보던 중 어떤 교수님과 우연히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분이 대학원에서 제 지도를 해주신 구정모  
교수님인데요. 대화를 나누는데 아시는 것도 많고 저에게도  
너무 잘해주셔서 이 분 밑에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굳



아가고 있다. 아이들을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

“저랑 정말 많이 닮았어요. 고집도 세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말도 정말 잘하고요. 말로는 저도 못 당해낼 정도예요. 레오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좋아하는 게 참 많이 닮았어요. 저는 노력파인 반면 레오는 타고난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다르지만요. 또 레오는 은근히 부끄러움이 많아서 관심받는 걸 어색해하지만 아라는 그 반대라 신기할 때도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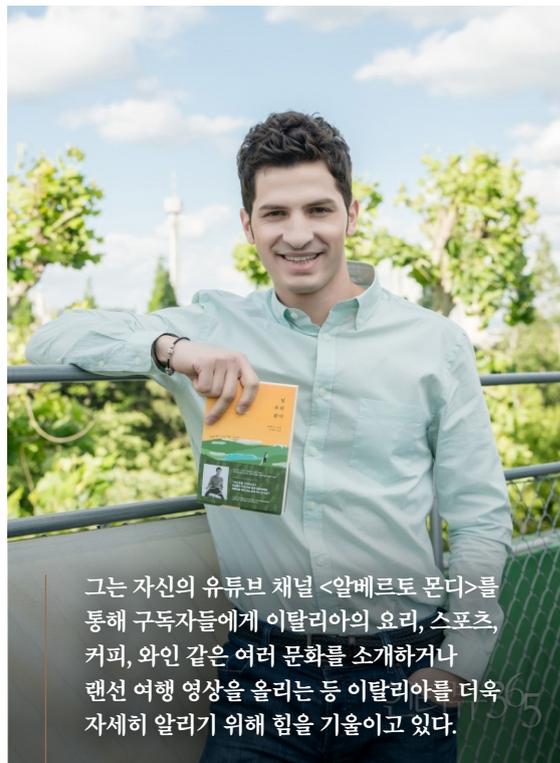
낮에는 방송 일을 하고 밤에는 육아에 힘쓴다는 알베르토. 그에게 육아를 하며 가장 행복한 순간과 가장 힘든 순간을 묻자 ‘매일매일 행복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 보면 행복하고 또 일 마치고 집에 들어왔는데 레오랑 아라가 달려와서 뽀뽀하고 안길 때면 너무 행복해요. 함께 있는 순간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 “한국과 이탈리아 사이의 가교되고파”

유학생에서 직장인으로, 이제는 방송인으로 어느새 15년째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알베르토. 그에게 앞으로 한국에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조금 뻘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국과 이탈리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아직까지 선입견이나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한국에는 이탈리아를 좀 더 자세하고 깊게 설명하고 이탈리아 역시 최근에 한국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베르토 몬디>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이탈리아의 요리, 스포츠, 커피, 와인 같은 여러 문화를 소개하거나 랜선 여행 영상을 올리는 등 이탈리아를 더욱 자세히 알리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알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한국을 알고 싶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아서 보람도 많이 느껴요.”

실제로 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알베르토 몬디>를 통해 구독자들에게 이탈리아의 요리, 스포츠, 커피, 와인 같은 여러 문화를 소개하거나 랜선 여행 영상을 올리는 등 이탈리아를 더욱 자세히 알리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다.

“한식 조리사 자격증에 도전하는 콘텐츠도 준비하고 있어요. 곧 구독자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가 서로를 더 잘 알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이탈리아 방송인을 넘어 두 나라 사이에 가교 역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알베르토의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해본다.

#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 제도 시행 5년

총 체납액 **3,558**억 원 징수

## 성과



법무부는 과세당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 연장 전(前)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2017년 5월 이후부터 시행하여,  
2021년 말까지  
체납액 3,558억 원 징수

## 주요 내용

법무부는 국세청, 행안부, 관세청,  
복지부(건강보험공단)로부터 세금 등  
체납정보를 제공받아 비자연장  
심사 시 체납 여부를 확인 후  
**체납자의 비자연장  
제한을 통해  
체납액 납부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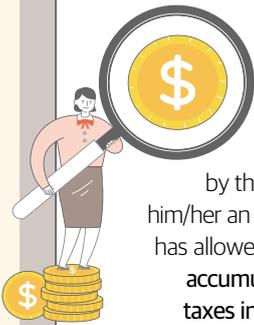
## 세금체납 확인 절차



# Five years since the policies have been put in place to verify taxes in arrears before granting an extension to the visas of foreign nationals

A total of **355.8** billion won in taxes in arrears have been collected

## Accomplishment



The Korean Ministry of Justice in collaboration with tax authorities, implemented as of May, 2017 a system of verifying that there are no taxes in arrears owed by the individual before granting him/her an extension of their visa. This has allowed the authorities to collect accumulative 355.8 billion won in taxes in arrears as of end of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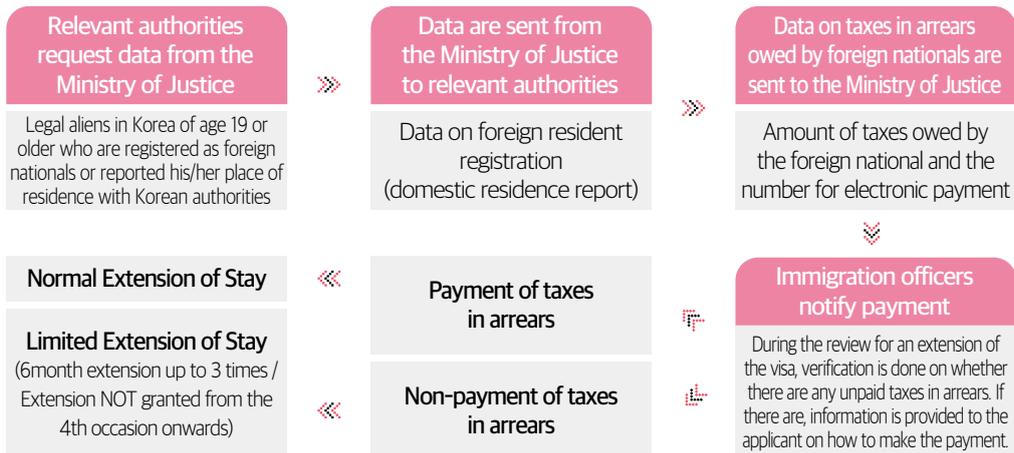
## Highlights

The Ministry of Justice receives data on taxes in arrears from the National Tax Service, Ministry of Interior, Korea Customs Service and the Ministry of Welfare (National Health Service) to verify that there are no taxes in arrears when reviewing applications for an extension to visas. This is aimed at encouraging the payment of taxes in arrears.



\* If payment of taxes is late on up to 3 occasions, the visa is extended for only a short period of up to 6 months. If payment of taxes is not made on 4 or more occasions, extension of the visa is not granted in principle.

## Flowchart for verification of taxes in arrears





# 국경 안전은 우리에게 맡겨라!

## 정보분석관의 24시간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정보분석과  
오채영 주무관 VLOG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소속 정보분석과는 대한민국에 입·출국하는 모든 승객의 탑승 요건을 확인하여, 부적격 승객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고 최종 탑승 명단을 확정하는 부서다.

우리나라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레이더를 가동하는 정보분석과 오채영 주무관을 만나 그의 하루를 따라가 보자.





AM 8:00 힘차게 출근!



**힘차게 출근!**

정보분석과는 각 10명씩 3개팀이 24시간 근무 후 이를 휴무하는 3교대 근무로 이뤄집니다. 오전 9시에 출근해 다음 날 오전 9시에 퇴근하기 때문에 체력은 필수! '힘들어서 어떻게 24시간 일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 생활 루틴과 잘 맞는 편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오늘도 활기차게 일해보겠습니다~!

24 hours



**업무의 시작은 인수인계**

출근하자마자 교대팀으로부터 전일 발생한 특이사항이나 연속성 있는 사안에 대한 인수인계가 진행됩니다. 정보분석과는 팀원들과 의논 후 처리해야 하는 업무가 많아 팀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해요. 저희 팀은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들 서로 배려하고, 대화도 많이 나눠서 분위기가 정말 좋습니다.



**전화 또 전화**

정보분석과는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과 사전 승객 정보분석시스템(APIS)을 활용해서 항공사로부터 탑승객의 명단을 전달받아 승객의 탑승 요건을 확인하고, 위험 승객을 선별하는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국의 항공사 직원들과 전화를 정말 많이 하는데, 다양한 억양의 영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종종 의사소통이 힘들 때도 있어요.



AM 10:00 전화 또 전화

“정보분석과 직원들은 우리나라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AM 8:30 업무의 시작은 인수인계

V-l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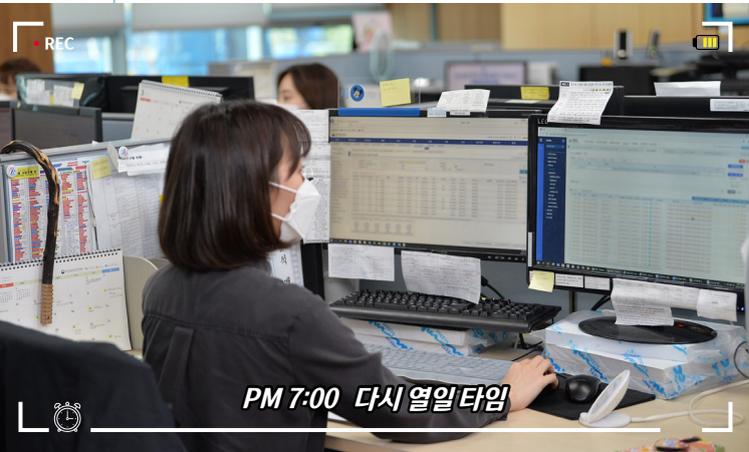
PM 1:00

**즐거운 점심시간**

정보분석과 업무는 24시간 풀로 돌아가야 하는 시스템이라 점심, 저녁식사는 교대로 1시간씩 한답니다.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아름답게 꾸며진 인천 공항을 거닐며 팀원들과 함께 산책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해소돼요. 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활력소도 되지요!



PM 7:00



**다시 열일타임**

정보분석관에게 꼼꼼함, 끈기는 떼어놓을 수 없는 단어예요. 특히 업무가 실시간으로 진행되고, 승객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항공사 직원과의 통화만으로 탑승 요건을 확인해 탑승 허가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안내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하며 일하고 있어요. 정보분석관은 언제나 끈기 있고 집요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PM 9:00

**팀원과의 호흡이 최우선**

간단한 사안은 단독으로 처리하지만 입출국 금지자의 탑승 차단, 위변조 여권 및 사증 소지자 적발 등 예외적이고 복잡한 경우는 팀원들과 숙고해서 결정해요. 한 번은 국제테러단체 조직원을 적발해 국내 입국을 원천 차단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경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 일이에요.





### 새벽에도 집중

비록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덜 하지만, 새벽 시간에도 해외 공항에서 입항 문의 전화와 메일이 쏟아져 들어와요. 동시에 간부 보고를 위한 일일통계도 작성해야 해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하루종일 통화도 많이 하고 새벽까지 또렷한 판단력과 정신력을 유지하려면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해야겠죠?



### 24시간 만에 드디어 퇴근!

8시 30분에 교대할 팀과 인수인계를 마치면 퇴근입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퇴근한 후 아침에 회식을 했는데 지금은 회식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동기와 커피 한 잔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정보분석과 직원들은 우리나라의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항상 열정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분석과의 24시간을 지켜봐주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오채영 주무관의 한마디

###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정보분석과에 온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선배님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정보분석관 업무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잘 파악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출입국 업무를 경험해봐야 한다는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3개월간 타 사무소로 파견을 가서 새로운 업무를 배웠던 것이 큰 자산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새로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주어진 대로 열심히 배워서 정보분석과의 든든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과  
'공존'을 모색하며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지로 꼽히는 환상의 섬 제주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다 현재 코로나19로 잠시 숨고르기에 있다.  
하지만 보다 나은 출입국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실 있게 조직을 정비하고,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맞이할 준비로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은 여전히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 혼저 읍서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청)은 1963년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출장소'에서 1970년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로 승격되었다. 2018년에는 전국 19개 사무소 중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6곳이 청으로 승격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제주청이다. 제주청 하면 무엇보다도 제주무사증 입국제도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제주지역에서는 아름다운 제주를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2002년 5월 1일부터 제주무사증 입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무사증 입국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에 따라 직항편을 이용하여 제주공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비자없이 30일간 체류가 가능하도록 특별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제주무사증 입국제도가 시행된 이래 매년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다 2016년에 정점을 찍으며 무사증 입국자가 91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제주 전체 외국인 관광객 약 280만 명의 약

32%에 해당했다. 당시 제주국제공항에서는 5개국 27개 노선의 직항편이 운항되어 제주 어디를 가든 외국인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렇게 제주 관광시장 확대에 기여해 온 제주무사증 제도는 제주 관광의 핵심가치이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2020년 2월 4일 이후 제주무사증 제도가 일시정지된 상태이고 운항 중인 국제노선도 전무한 실정이지만, 제주청 직원들은 무사증 재개 및 국제선 정상화를 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 중에서 유일하게 제주청에서만 하는 업무가 있는데, 바로 출도심사다. 제주지역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의 다른 지역, 즉 육지로 나갈 때 출도 적격 여부를 확인하는 또 하나의 심사제도를 말한다. 현재 제주청은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더욱 정확한 출도심사를 위해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구역에 자동출도심사대 6대를 설치하였으며 2022년 4월 11일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제주무사증 제도는  
제주 관광의 핵심가치이자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이고,  
국제적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되찾기 위한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다.



###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청

제주청은 작년 제14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통합자원봉사위원 및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과 함께 마늘 수확, 깨끗한 제주 바닷(바다의 제주 방언) 만들기 환경정화 등 자원봉사 활동을 했다.

지난 4월 1일에는 이민자 네트워크 회원들과 장애인이 함께 직접 빵을 만들어 소외된 이웃들과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나누는 활동도 했다.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시점에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할 계획이다. 그뿐만 아니라 제주청은 그간 한국 사회에 종교·문화·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 온 숨은 유공자를 찾아 특별귀화 대상자로 추천하였다. '예멘 난민의 수녀'로 불리던 천주교 제주교구 나오미센터의 크리스티나 수녀가 올해 2월 법무부로부터 그 공적을 인정받아 특별공로자 자격으로 국적을 취득했다.



제주청은 앞으로도 더불어 살아가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해 힘쓰는 제주청

제주무사증 입국제도 시행 후 외국인들이 편리하게 제주를 방문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제도를 악용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불법취업 등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빙자하여 무사증으로 입국한 후 공항만에서 위조 신분증을 행사하여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이에 제주청은 지난 2019년부터 조사과 내 기획조사팀을 신설, 전문적이고 신속한 기획수사로 출입국사범을 검거하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불법취업 알선, 허위서류 알선 브로커, 신분세탁 외국인 등 9명을 송치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진영 청장은 “향후 인력과 조직을 정비하고, 내실있는 청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범죄에 대응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를 확립해 아름다운 섬 제주를 지킬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도 제주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보다 나은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제주청이 기대되는 바이다.





Chief INTERVIEW

“외국인이 가장 찾고 싶은 제주, 선진 출입국 행정서비스로 맞이하는 국제 관문”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김진영 청장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사회통합, 출입국사범 조사·보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국적·난민 업무 등 체류 외국인 행정업무와 출입국심사 등 국경관리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전국 유일의 출입국·외국인청입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사회통합을 추구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외국인 체류 질서를 유지하는 한편,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걸맞는 우수 인재와 외국인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가장 찾고 싶은 곳이 되도록 선진 출입국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MINI INTERVIEW

우리 청의 자랑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OOOO 이다”



天地同根 : 천지동근

제주청의 모든 직원이 한 뿌리에서 나온 'one team'으로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돕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한 가족' 같습니다.

· 관리과 이은경 과장



Archipelago

아рки펠라고 달걀

제주청의 직원들은 나를 잃지 않고서도 남들과 어울리고, 개성을 뽐내면서도 조직과 화합합니다.

· 관리과 박태자 팀장

백만불짜리 풍경

제주청에서는 한라산과 제주바다를 동시에 볼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퇴근하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볼 때면 그 풍경에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옵니다.

· 조사과 최지우 반장



손발이 척척

지역적인 특성으로 장기간 함께 근무한 직원들이 많아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어 제주청 직원들과 함께 일한다는 자체가 행복합니다.

· 심사과 송은정 반장



# “우리 곁의 숨은 유공자들이 대한민국 국민이 되다”

## 제10회 특별공로자 국적 증서 수여식 현장 속으로

### 사회적 약자 위해 헌신한 특별공로자 3인

오랫동안 국내에서 활동하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유공자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24일 법무부 대강당에서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주년을 기념해 ‘선한 영향력이 있는 숨은 유공자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한국명 원이삼),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 타망 다와 치링 스님(법명 설래) 등 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이날 행사에는 체자 아르메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박종삼 한국글로벌사회봉사연구소 소장 등 특별공로자들의 지인 등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특별공로자로 선정된 분은 한국에  
기독병원을 건설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한 원이삼 선교사,  
제주 예멘인의 정착을 도운 크리스티나 수녀와  
네팔 이민자의 국내 적응을 도운 설래 스님이다.

사회적 약자 보호에 장기간 헌신한 숨은 공로자들로 산업화시대 한국에 기독병원을  
건설하고 학문 발전에 기여한 원이삼 선교사, 그리고 제주 예멘인의 정착을 도운 크  
리스티나 수녀와 네팔 이민자의 국내 적응을 도운 설래 스님이 특별공로자로 선정  
돼 대한민국 국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는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국적증서 수여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특별공로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인사  
를 전하자 분위기가 한층 더 무르익어갔다.

### 한국인으로서 새출발 하는 수여식 현장

법무부는 지난 2012년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 제도를 도입해 매년 1명씩 특별공  
로자를 선정해왔으며,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의 외국 국적  
을 포기하지 않고도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인요한 박사(미국)가 최초로  
특별공로자로 인정받은 이래 현재까지 총 12명의 특별공로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  
었다.



체자 아르메누 주한 루마니아 대사, 대한불교조계종  
해외특별교구장 정우 스님, 박종삼 한국글로벌사회  
봉사연구소 소장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로 불리는 원이삼 선교사는 건설엔지니어 정부 초청으로 입국해  
광주기독병원과 상하수도 시설을 설계·시공하는가 하면, 기독교 학문과 선교활동에 기여  
해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공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5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  
국은 나의 집이 되었고, 내 인생 여정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크리스티나 수녀는 이주노동자 심터를 설립하는 등 소외된 이웃 보호와 인권 옹호 활동을  
주도해 왔고, 2018년부터는 제주에서 예멘인들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의료 지원에 큰 디  
딤돌 역할을 했다. 이에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 땅과 사람들을 이해  
하고 사랑하게 되었으며, 루마니아인이자 한국인이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럽다”고 강조했다.  
설래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 청소년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해왔다. 특히 네팔 근로자  
와 유학생 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해 사회통합에 공헌해 이름을 올렸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너무도 기쁘고, 앞으로도 수행과 봉사를 실  
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날 국적증서 수여 후 이들은 “한국인이 돼 자랑스럽고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박범  
계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온전히 한국인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며 “특별공로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  
식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소통과 이해를 넓혀가는 계기가 되길 희  
망한다”고 밝혔다.

# 2022 새로운 트렌드



## 일상에 스며든 거리두기 '나'에 집중하는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본격적으로 펼쳐진  
을 한해는 어떤 모습일까? 일상의 풍경을  
바꿔놓은 바이러스와 공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2022년은 어떤 모습인지,  
<트렌드 코리아 2022>가 선정한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를 소개한다.

## 01 # 나노사회

###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공동체

사회적 거리두기, 모임 인원수 제한이 계속되면서 사회는 더욱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 나노(Nano)는 분자 단위를 계산할 때 쓰는 단위로 '나노사회'는 공동체가 모래알처럼 개인으로 흩어지는 등 앞으로 사회 인프라와 소비 유통이 세분화되며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특징이 있다.



## 02 # 엑스틴

### 소비 시장의 '진짜' 큰손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들로 MZ세대를 손꼽지만, 인구 규모나 소비 파급력으로 볼 때 소비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이다. 특히 70년대생의 X세대들은 경제·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내면서 형성된 자유롭고 개인주의적 성향을 간직하고 있다.

## 03 # 라이크 커머스

### 더 커진 인플루언서의 영향력

생산자 중심의 유통과 소비가 일어나는 시대가 빠르게 지고 있다. 개인이 자체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 및 판매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대가 도래했다. 소비자의 유통 과정이 소비자들의 '좋아요(Like)'에서 출발한다는 의미의 '라이크 커머스'가 대세로 떠올랐다.



## 04 # 갯쟁

### 다시 돌아온 열정 세대

젊은 층이 반감을 보였던 열정이 다시 돌아오고 있다. '갯쟁'은 신을 뜻하는 갯(God)과 인생(生)을 합쳐 만든 신조어로 열심히 사는 인생을 뜻한다. MZ세대 중에서도 특히 Z세대들이 열광하는 단어다. '갯쟁살기'는 코로나 이후 2020년 3월부터 급격하게 검색량이 늘어났다.

## 05 #득템력

### 럭셔리 < 희소템

과거에는 '값비싼 브랜드 제품'을 차별화 요소로 내세웠다면 이제는 '갖기 어려운 아이템'에 대한 과시가 차별화의 축으로 자리잡았다. 경제적인 지불 능력만으로는 얻기 어려운, 희소한 상품을 얻을 수 있는 소비자의 능력을 '득템력'이라는 키워드가 탄생했다.



## 06 # 러스틱 라이프

### '촌'스러움을 힙하게 즐긴다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는 도시에 살면서 시골 생활의 여유를 누리려는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한다. 도시인에게 시골은 여유로움과 힐링을 선사하는 매력적인 공간이 되어준다. 소박한 삶에 '촌'스러움을 더하는 새로운 일상을 지향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 07 # 헬시 플레저

### 기왕이면 건강관리도 즐겁게

바이러스가 전 세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소비자들은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 더이상 고통을 감수하거나 절제하지 않는다. 맛있게, 즐겁게, 그리고 편리하게 관리하는 추세다. 건강관리가 즐거워진다는 의미에서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탄생했다.

## 08 # 밈

### 21세기 고사성어

'밈(Meme)'은 우리가 예로부터 일상에서 쓰는 고사성어, 사자성어 혹은 속담과 유사하게 사용된다. 밈을 단순한 유행어로 치부할 수만은 없다. 동시대인들이 중요시하는 생각과 감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무드나 문화적인 코드, 가치관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 09 # 스몰 액션

### 작은 실천이 불러온 선한 영향력

일상의 작은 실천으로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을 드러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샴푸 대신 비누로 머리 감기, 착한 가게 돈줄내기 등 이른바 '스몰 액션(Small Action)'을 선보이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방식이 아닌 작은 액션들이 주변을 바꾸는 실천은 계속될 것이다.

## 10 # 크래프트 소비

### 개인의 취향을 품은 맞춤 소비

자신만의 가치와 취향을 소비하는 문화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수공예와 수공업업을 의미하는 '크래프트(Craft) 소비'가 대세로 떠올랐다. 수제 콜라, 수제 맥주, 수제 커피를 소비하는 사례가 대표적인 것이다. 의식주 생활 전반에서 크래프트 트렌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 1인 미디어 전성시대, 유튜버 영상 콘텐츠 배우기

읽는 것보다 직관적이고 현실감 있는 영상 콘텐츠가 인기다. 비대면 사회상도 영상의 수요를 늘리고 있다. 서로 만나지 못하는 시대에 이만큼 효과적이고 간편한 방법이 드물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수업이 영상으로 진행되고, 각종 강좌와 소통 방법 또한 영상이 대신하고 있다.



### 직접 만드는 영상 콘텐츠

최근에는 영상을 소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는 것도 인기다. 일상을 기록하기 위한 취미로, 혹은 자기개발 차원에서 영상 제작을 익히기 시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제작을 직업으로 삼은 스트리머는 물론 비대면 수업을 하기 위해 처음 영상 제작을 접한 학교 선생님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영상 제작에 도전 중이다. 이는 영상으로 소통하는 시대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과도 같다.

어떻게 시작할지가 막막한가? 먼저 대표적인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서도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영상 제작을 막 시작한 입문자를 위한 기초편부터 다양한 툴의 활용법, 모션 그래픽 등을 활용하는 고급 과정까지 다양한 강좌가 준비돼 있다.

제대로 된 커리큘럼으로 배워보고 싶다면, 유료 온라인 강의채널에 등록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렴한 가격으로 현직 전문 스트리머나 PD로부터 영상 편집을 체계적으로 배워볼 수 있다. 온·오프라인상에서 다양한 교육기관과 학원의 교육과정을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 나를 위한 Tool 고르기

영상 제작은 크게 촬영과 편집으로 나뉜다. 예전에는 일반인이 값비싼 촬영장비에 접근하기 다소 어려웠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인 휴대폰으로도 촬영과 실시간 스트리밍, 그리고 비교적 손쉽게 편집까지 가능한 시대다. 휴대폰으로 만드는 영상에 4K급의 화질이나 애니메이션 등이 필요할 이유는 없다. 1인 크리에이터라면 그 시간에 콘텐츠 자체에 더 신경쓰는 편이 나은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코렐'의 결과물을 만들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조금만 더 공을 들인다면 누가 보아도 손색없는 나만의 창작물을 만들 수 있다. 촬영과 편집 전 몇 가지 팁을 기억하고 제작에 들어가는 것을 추천한다.

촬영보다 편집이 재미있다면, 장비를 갖추고 편집을 취미로 삼을 수도 있다. 시중 다양한 편집 프로그램이 나와 있다. 각자 강



점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골라야 할지 막막하다면 무료 배포 편집기를 우선 사용해보고 내가 원하는 영상에 맞춤형 편집기를 차차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영상 편집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고사양의 PC(메모리 32GB 이상)가 필요한 점도 생각해야 한다. 무료가 아닌 전문가용 편집기의 가격 또한 일반 프로그램에 비해 저렴하다고 보기 어렵다. 취미생활을 위한 기초투자라고 생각하고 초기 비용만 감당한다면, 콘텐츠를 나만의 방식으로 직접 만들 수 있는 세계에 첫발을 디디게 될 것이다.

## 스마트폰으로 촬영부터 편집까지 끝내기

### 1 동영상 구도 이해하기

휴대폰 혹은 카메라의 설정 기능에 있는 '수직/수평 안내선' 기능을 활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격자선을 활용해 동영상의 수평을 맞출 수 있다. 사람이나 주요 오브제를 중심에 두는 것이 가능하다.



### 2 화질 설정하기

마찬가지로 설정을 누르고, 동영상 크기를 직접 지정할 수 있다. 1080p 해상도로 촬영하면 고화질의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 3 비율 설정하기

유튜브 등을 활용해 촬영 시, 상단에서 비율 설정을 확인한 후 '9:16' 혹은 '16:9'로 설정한다.

### 4 앱으로 편집하기

다양한 영상 편집 앱이 시중에 존재한다. 무료 동영상 편집기로도 충분히 내가 해보고 싶은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

### 5 배경음악 저작권

유튜브를 비롯한 모든 영상 업로드 플랫폼에서 저작권에 엄격하게 다룬다. 해당 문제를 어기면, 어렵게 만든 영상이 삭제될 가능성도 있다. 해당 채널의 저작권 문제 없는 음악의 리스트를 확인하거나, 직접 만든 음악을 올리는 것이 좋다.

### 6 플랫폼별 특징 이해하기

유튜브, 트위치, 아프리카, 비메오 등 다양한 영상 플랫폼별 제공하는 기능도 다르고 관련 규정도 다르다. 이를 잘 이해하고 외설적인 콘텐츠나 문제가 생길 영상은 지양하도록 한다.

# 궁금해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행 1년간의 이야기!

지난해 5월 3일부터 시행된 K-ETA 제도가 시행 1년째를 맞이했다.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이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입국 전 사전 검증 절차를 거쳐  
 국경 안전을 확보하고 맞춤형 입국심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한 K-ETA!  
 K-ETA의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통계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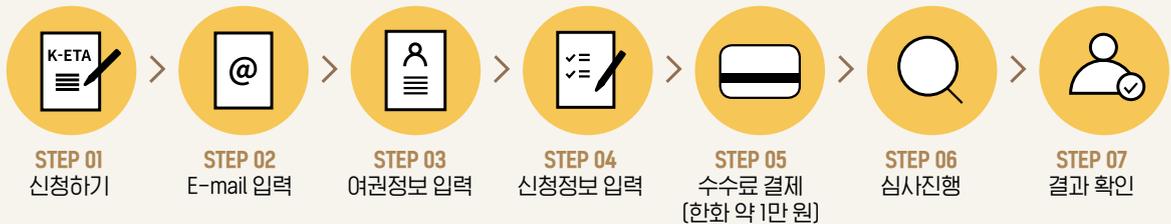


### | 전자여행허가(K-ETA)는 뭔가요? |

- 비자 없이 한국에 입국 가능했던 국가의 국민이 한국에 입국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
- K-ETA를 받아야 한국행 항공 탑승권 발권이 가능하며, 한 번 허가를 받으면 2년간 유효하고 기간 내 반복 사용 가능
- 올해 4월 1일부로 신청대상 국가 대폭 확대 (기준) 50개 국가 → (확대) 96개 국가

### | K-ETA 신청 단계별 안내 |

K-ETA 신청은 K-ETA 공식 홈페이지(www.k-eta.go.kr) 또는 모바일앱(K-ETA)을 통해 항공기 탑승 72 시간 전까지 본인 또는 가족, 친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 순서를 따라 하면 쉽게 신청할 수 있다.



### | 전자여행허가(K-ETA) 국적별 신청자 수 (2021.5.3.~2022.3.31.) |

(단위: 명)

구분	합계	미국	싱가포르	독일	프랑스	영국	태국	기타
합계	130,344	82,229	11,571	5,321	5,009	4,867	4,662	16,685
비율	100%	63.08%	8.87%	4.08%	3.85%	3.75%	3.57%	12.8%



# No.1 공존인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업무에서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공감인들.  
공감인들이 민원인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가장 보람 있고, 자신 있어 하는 공감 노하우를 소개한다.

유학생의  
한국생활을 돕는  
민원처리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진희  
출입국관리서기

저는 대학에서 학생들의 안전과 학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비자에 관해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유학생 정진희 담당자에게 자주 문의를 드리게 되었고 바쁘신 중에도 늘 상냥하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간혹 외국인 유학생들이 다 보니 의도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때도 그에 걸맞은 충고와 지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관할 지역에 많은 대학이 있어 공무에 바쁜 와중에도 잦은 민원처리를 응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정진희님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유학생들의 안전과 학사관리를 위해 많은 것은 배우고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 강○○ 학생

### 공감 노하우

“저의 응대 노하우는 '진심'입니다. 저는 매일 관할 지역 대학의 수많은 유학생 담당자들의 문의를 응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협력 관계라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대하려 노력하다 보니,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유대관계가 쌓여 원활한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 체류연장을  
도와준  
감사의 마음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청  
이정은  
출입국관리서기

### 공감 노하우

“저의 응대 노하우는 '경청'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체류 업무를 해왔는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복잡한 케이스도 경청하는 자세로 이야기를 들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서로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청하는 자세로 민원인들과 소통하려 노력합니다.”

저는 한국에 투자하여 D-8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중국에 계신 아버지의 건강상태가 나빠졌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중국에 가기 위해 비자 연장 신청을 하러 출입국에 방문하였지만 서류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만 되돌아왔습니다. 한국말을 잘 모르는 저는 비자 연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방문한 날은 좋게 남부출입국사무소 이정은 담당자와 박장훈 실장님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연장을 받고 중국에 갈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버지 장례도 무사히 치르게 되었고, 한국에 가면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류○○ 씨

## KIS NEWS

1

###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 사무소 승격



지난 3월 21일, 경기 안산시에 위치한 인천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가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승격되어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이번 승격으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관할 범위가 기존 안산·시흥시에서 광명·안양·군포시까지 확대됐다. 특히 '상호문화도시'인 안산시에 걸맞게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업무 범위가 기존 체류 및 단순 실태조사 업무에서 국적·난민접수·사회통합·외국인 조사업무까지 확대돼 종합적인 출입국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울러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체류, 국적, 사범업무를 위한 민원 접수 창구 7개와 국적 심사 면접실 2개, 수유실을 신설·추가하는 등 민원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방문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청사 개청



법무부는 지난 2월 9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신축 청사 개청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약 7만 8천 명의 체류관리 업무와 대구국제공항의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대구 동구 검사동에 위치하였던 이전 청사는 1992년에 건립되어 그동안 각종 편의시설 부족, 공간 협소 등으로 민원인들이 업무 처리 중 불편을 겪었지만, 이번 생활 및 교통 인프라가 확충된 대구 신서혁신도시 나라키움 대구통합청사에 위치한 신청사는 지하 1층, 지상 5층으로 구 청사 대비 2.5배 규모로 확장되어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하게 청사를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3

## 부산출입국·외국인청 감시정 '항옥호' 취항식 개최

법무부는 지난 4월 1일 부산항 부두에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항옥호'의 취항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 : Customs-Immigration-Quarantine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감시정 도입 경과보고, 명판 제작식, 운항명령서 결재 순으로 진행되었다. 법무부는 선박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목포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



년에 씨아이큐(CIQ) 감시정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감시정을 이관하였고, 이후 40년 만에 다시 감시정을 도입하였다. 이번 감시정 도입으로 외항 선박에 대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물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4

## 국내 스타트업 창업과 성공을 지원하는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 개최



법무부는 지난 4월 4일 글로벌창업이민센터에서 외국인 스타트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외국인 기술창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2015년에 최초 설립된 글로벌창업이민센터는 그간 법무부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OASIS)을 운영하며, 140여 개의 외국인 스타트업 설립 지원 등 다양한 성과를 거두어 외국인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해 왔다. 이번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는 우수한 외국인 창업자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 외국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들이 국내에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창업 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5

##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신속한 입국 지원 및 신분 불안 해소



법무부는 외교부와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현지 정세가 안정화 될 때까지 재외공관 관할구역에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동포 등의 사증 신청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신속히 입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교부와 핫라인을 구축(3. 23.)하여 현지 공관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신속히 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는 국내에 단기사증(90일 이하 체류)으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EVENT #1

독자 의견

2022년 <공존> 봄호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번 호를 읽고 기억에 남는 글이나 흥미로웠던 콘텐츠가 있다면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참여 기간

2022년 5월 1일(일) ~ 21일(토)

참여 방법

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스북 계정 or 유튜브 계정을 팔로우(구독)!
2. 페이스북 공존 이벤트 게시물 or 유튜브 <공존> 티저영상 게시물에 '좋아요'
3.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참여 경품

다양한 독자 의견을 주신 분 중 10명을 선정해 파리바게뜨 교환권(2만원)을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

2022. 5. 28.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세요

EVENT #2

퀴즈 타임

정답을 아시는 분은 아래의 QR코드에 접속하여 정답과 함께 이름,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를 적어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Q.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도심사를 하며, 국제적 관광지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맞이할 준비로 분주한 출입국·외국인청은 어디일까요?**

- ① 서울출입국·외국인청                      ② 제주출입국·외국인청
- ③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④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보내실 곳** 아래 QR 코드 참여  
**정답 마감** 2022년 5월 27일  
**문의** 법무부 출입국기획과(02-2110-4019)



**빠르고 간편한 독자퀴즈 참여방법**  
왼쪽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소식지에 관한 다양한 독자 의견과 퀴즈 정답을 남기면 참여 완료!

# 제1회 외국인행정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 ☑ 대회일정

<b>① 서류제출</b> 4. 25.(월) ~ 6. 30.(목)	<b>② 1차 서류 평가</b> 7. 6.(수) ~ 7. 7.(목)
참가신청서 등 접수	평가결과 개별통보
<b>③ 2차 발표 평가</b> 7. 20.(수)	<b>④ 시상식</b> 7. 27.(수)
평가결과 개별통보	훈격 및 상금 수여

※ 상기 일정은 대내외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공모부문

「도전·공공데이터」 아이디어 기획(사회문제 해결)

## ☑ 참가자격

외국인행정에 관심있는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개인, 팀 등)

## ☑ 신청방법

- 1 '법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 →
- 2 기관별 예선 → 3 참가신청 → 4 신청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 5 신청서류 제출(✉ immibigdata@korea.kr)

※ '법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홈페이지 : [www.startupidea.kr](http://www.startupidea.kr)

## ☑ 평가결과 발표

개별 통보

## ☑ 시상 및 포상

상훈	상장	상금	비고
최우수상	법무부장관상	1팀 200만원	통합본선 추천
우수상	법무부장관상	1팀 100만원	-
장려상	이민정책연구원장상	1팀 50만원	-

※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유사대회에서 중복 수상한 경우 입상 취소 가능

## ☑ 문의

☎ 02-2110-4475

✉ [immibigdata@korea.kr](mailto:immibigdata@korea.kr)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MINISTRY OF JUSTICE